

# 전남도, 광양항 자동화 컨부두 예타 통과 총력

### 해수부·용역사 등과 협업 구축 쟁점 분석·정책성 항목 발굴 추진 매일 정기회의 개최 적극 대응

전남도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구축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설계 용역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처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10대 과제에 반영되고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고시돼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광양항 자동화 '컨' 부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자동화 부두로 사용 중인 선석을 국내 최초로 국내기술을 활용해 전 영역에 항만 자동화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940억 원을 들여 완전 자동화 부두 5

만급 3선석과 2만급 1선석 등 4선석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설계 용역사 등과 함께 공동협업체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기관·단체별로 업무분장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관련 자료 작성, 쟁점 사항 예상 분석, 타당성 제고를 위한 추가 편의 및 정책성 항목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 정기회의를 개최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민 여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국회를 비롯해 산업·경제계, 노조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가를 유도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최초 전 영역 자동화 항만 구축 테스트베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구축돼 광양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자동화 '컨' 부두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상무중앙로 추가공사 출·퇴근 우회 하세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8일부터 상무중앙로 작업구간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 건물 앞 사거리-민한방병원 건물 앞 사거리까지 362m 구간을 추가 공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SE제일은행 건물 앞 사거리부터 타임스퀘어 빌딩 인근 사거리까지 214m 구간의 연장선이다. 도로 중앙분리대 철거와 차선전환을 실시하며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계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시작한 구간은 시민 안전을 위해 차로의 차선 유도 표시 변경을 완료했으며,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한 차로씩 점유해 공용 울타리를 설치한 후 중앙분리대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당초 왕복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차선이 축소되는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무중앙로 교통체증 가중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구 교통지도과에 불법 주차 단속을 협조 요청했으며, 광주교통방송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공사 현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대경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출퇴근 시간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6일 오후 광산구 광주빛그린산단에서 열린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착공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 광주 빛그린 산단에 대학·기업 연계 산학 융합지구 조성

### 캠퍼스관·기업연구관 착공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들어선 빛그린 산단에서 기업과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협력을 구현하는 국책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26일 오후 광주 빛그린 산단에서 산학 융합지구 캠퍼스관, 기업연구관 착공식을 열었

다. 착공식에는 광주시, 전남대 등 관련 기관장과 국회의원 외에도 이진을 앞둔 전남대학교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 신입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곳에는 399억원을 들여 캠퍼스관, 연구개발 장비와 공간을 지원하는 기업연구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선다. 캠퍼스관에서는 강의실, 교수실, 연구 공간 등이 제공되며 기업연구관에는 50

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산학 융합지구는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의 삼박자를 갖춘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에 꿈을 실현하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우는 미래 성장 산업 거점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3334명 지원...38.3대 1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이 3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 필기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87명 모집(14개 기관)에 3334명이 지원했다.

도시철도공사가 14명 모집에 1126명이 지원해 8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역무(일반) 분야에서는 5명 모집에 874명이 지원해 174.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관별로 환경공단 16대 1, 경제고용 진흥원 78.7대 1, 산용보증재단 81.9대 1, 영어방송 13.3대 1, 복지연구원 7대 1, 과학기술 진흥원 15.1대 1 등이다.

또 문화재단 36.4대 1, 그린카 진흥원 6.5대 1, 평생교육진흥원 70대 1, 관광재단 61대 1, 교통문화연수원 31대 1,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8.7대 1,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18대 1 등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통합 필기시험은 다음 달 8일 치러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국악방송, 전통문화예술 대중화 '맞손'

### 콘텐츠·지식자원 활용 등 업무협약

광주시와 (재)국악방송이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김영은 (재)국악방송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 전통문화예술 각 분야의 공동

발전과 문화융성 및 전통문화예술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광주전통음악에 대한 활성화 전략 구축 및 추진 ▲공연예술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및 지식자원 상호활용 ▲광주문화예술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재)국악방송은 2000년 2월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방송량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라디오 14개 채널과 TV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가장 광두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 취임 직후 국악상설공연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국악방송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국악상설공연 등 광주의 문화예술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전남도, 최대 5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주민 스스로 아파트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아파트형 공동체 60개소 내외를 선정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아파트 내 갈등 해결, 노동, 인권, 녹색환경, 돌봄, 이웃돕기 등 생활 문제를 의제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지역 5인 이상 아파트 주민협의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회,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공동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역량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5월 14일까지 시군 공동체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시군 1차 심사 후 전남도에서 2차 심사까지 마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컨설팅 회계 교육 이수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최근 전남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느는 추세이나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활성화 정책과 지원은 미흡하다"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